

# 樂浪郡과 三韓과의 交涉形態에 대하여

- 三韓地域 出土의 漢式 遺物과 非漢式 遺物의 檢討를 中心으로 -

高久健二\*

## 목 차

- I. 머리말
- II. 樂浪墳墓에 보이는 漢式 要素와 非漢式 要素
- III. 樂浪郡과 三韓과의 交涉形態
  - (1) 漢式 遺物에서 보이는 交涉形態
  - (2) 非漢式 遺物에서 보이는 交涉形態
- IV. 맺음말

## I. 머리말

樂浪郡 設置 當時인 한국 남부지역의 三韓時代 文化의 특징으로서는 鐵器의 發達 및 普及과 이에 따른 農耕技術의 發展, 그리고 還元 燒成된 土器의 出現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배경으로 中國 漢代의 先進技術을 가진 樂浪郡의 文化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sup> 辰韓 斯盧國이나 弁韓 狗邪國과 같은 三韓 盟主國의 形成에 있어 樂浪郡을 통해서 中國의 先進文化를 導入하는 遠距離交易이 그 요인의 하나였다는 지적이 문헌사학에서 제시되고 있으며,<sup>2)</sup> 三韓의 成長過程에 있어서 樂浪郡과의 對外交易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고학에 있어서도 樂浪郡을 中核地域으로 하여 高句麗·馬韓·辰韓·弁韓 등 나중에 三國 諸勢力으로 발전하는 周邊地域을 Lelang interaction sphere로 파악하여 한국의 國家形成을 설명하는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sup>3)</sup>. 이에 의하면 각

\* 타카쿠 겐지: 日本 埼玉大學 教養學部 專任講師(考古學專攻)

1) 金元龍 1986

2) 李鍾旭 1989

3) Pai Hyung Il 1989

주변지역은 樂浪郡과의 다양한 相互作用을 통해서 각각의 identity를 강화하여, 그 결과 지역간의 境界가 형성되었고, 나아가 樂浪郡이 滅亡하면서 각 지역은 각각 독립된 政治體로 발전하며, 各 政治體의 相互作用을 통해서 國家形成이 가속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韓國의 國家形成過程에 있어서 樂浪郡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樂浪郡과 三韓과의 구체적인 交涉形態에 대해서는 樂浪郡을 통해서 중국과 간접적으로 교섭하는 朝貢貿易과 商人에 의한 交易活動이라는 交涉의 二面性이 지적되어, 樂浪郡과 三韓과의 交涉이 多面的인 것이었음이 새로 밝혀졌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활발한 교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三韓時代의 墳墓에서 출토된 副葬品을 보면, 中國製 遺物(漢式 遺物)은 많지 않고, 韓國 靑銅器文化 以來의 遺物(非漢式 遺物)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처음으로 矛盾에 대해서 언급한 미카미 쓰기오(三上次男)는 中國政權이 三韓社會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金屬器 등의 讓與를 제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5)</sup>. 그리고 尹龍九는 鐵製長劍이나 鐵戟, 弩機 등의 漢式 武器는 周邊民族에로의 반출이 금지된 禁輸品이었다는 사실을 들어, 三韓地域에서 漢式 武器가 보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가 언급하고 있는 漢·樂浪·三韓 각 지역에서의 생산과 교역은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으로서 주목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漢으로부터 樂浪郡으로 들어온 제품은 대부분이 樂浪에서 소비되는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賞賜品으로서 三韓에 下賜되었으며, 三韓의 特産物은 樂浪에 들어가서는 「樂浪産」으로서 漢에 수출되었다. 그리고 樂浪郡은 郡內에서 생산된 제품도 三韓으로 수출함으로써 中繼貿易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6)</sup>. 즉 樂浪産 제품은 韓國 靑銅器時代 以來의 제품을 漢의 기술을 도입하여 발전시킨 것이며, 이것이 주로 三韓으로 수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尹龍九의 견해는 어디까지나 문헌사료의 검토가 중심이었는데, 그에 대한 고고학적 검증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먼저 樂浪郡의 고고학적 자료에 보이는 漢式·非漢式 要素에 주목하여 樂浪郡과 三韓과의 交涉形態를 고찰하고, 그리고 이러한 三韓文化와 그 후에 등장하는 三國文化와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4) 李賢惠 1994

5) 三上次男 1966

6) 尹龍九 1995

## II. 樂浪墳墓에 보이는 漢式 要素와 非漢式 要素

樂浪郡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지금까지 墳墓를 중심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연구 가능한 遺物은 墳墓의 副葬品이 대부분이다. 樂浪 墳墓에는 土器, 漆器, 武器, 車馬具, 農工具, 裝身具 등 다양한 遺物이 副葬되어 있는데, 이러한 遺物들은 크게 漢式 遺物과 非漢式 遺物로 나눌 수 있다<sup>7)</sup>. 漢式 遺物이란 말대로 漢文化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非漢式 遺物은 漢文化 以外的 계보를 가진 것이다<sup>8)</sup>. 樂浪의 경우, 이 非漢式 遺物에는 秦漢 이전, 즉 中國 戰國時代 文化의 계보를 가진 것(先漢式)과 韓國 青銅器文化를 계승한 것(韓國式)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주로 韓國 初期鐵器文化의 起源이 되는 戰國時代 燕의 鐵器文化이고 후자는 韓國式 銅劍을 중심으로 한 青銅器文化이다. 그리고 非漢式 遺物이라고 해도 樂浪郡 設置 以前의 文化 그대로가 아니라, 郡 設置와 함께 전해진 漢의 先進技術(특히 鐵器製作技術)에 의해 改良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서 먼저 樂浪 墳墓의 副葬品을 漢式 遺物과 非漢式 遺物로 분류해 두고자 한다. 먼저 漢式 遺物으로서는 劍身長 80cm 전후의 鐵製長劍(圖 1-1)이나 環頭大刀, 莖部를 가진 鐵槍, 弩機(圖 1-2) 등의 武器類, S 字形의 재갈멈치를 가진 三連式 재갈(圖 1-4~7), 蓋+彈(圖 1-9~12), 車軸頭(圖 1-13), 馬面(圖 1-8), 馬鈴(圖 1-14) 등이 set를 이룬 車馬具, 鍾이나 鼎 등의 青銅容器(圖 1-17·18), 夾紵胎의 漆器, 漢式鏡 등을 들 수 있다. 이 遺物들은 漢墓에서 出土된 것과 형태가 거의 같기 때문에 대부분이 漢에서 제작되어 樂浪으로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非漢式 遺物에는 韓國式 銅劍(圖 1-19, 圖 2-2~4)이나 銅矛(圖 1-23, 圖 2-6) 등의 韓國 青銅器文化를 계승한 青銅製 武器類, 그리고 韓國式 銅劍에서 변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劍身長 30cm 전후의 鐵製短劍(圖 2-7~9)이나 素環頭刀子, 燕의 鐵器文化에 계보를 구할 수 있는 鐵矛(圖 1-24, 圖 2-10~12) 등의 鐵製 武器類가 있다<sup>9)</sup>. 또 拳銃形銅器, 乙字形銅器(圖 1-25), 笠頭圓筒形銅器, 笠頭나팔形銅器(圖 1-26), 圓筒形銅器(圖 1-28), 鐵棒을 꼬아서 만든 재갈(圖 2-13·14), 小銅鐸(圖 2-15·16), 車軸頭(圖 1-27), 蓋弓帽(圖 1-29·30) 등이 set를 이룬 車馬具도 漢代의 車馬具와 다른 韓國의 독자적인 非漢式 遺物이다<sup>10)</sup>.

7) 西谷正 1966

8) 高久健二 1993

9) 高久健二 1992b

10) 岡內三眞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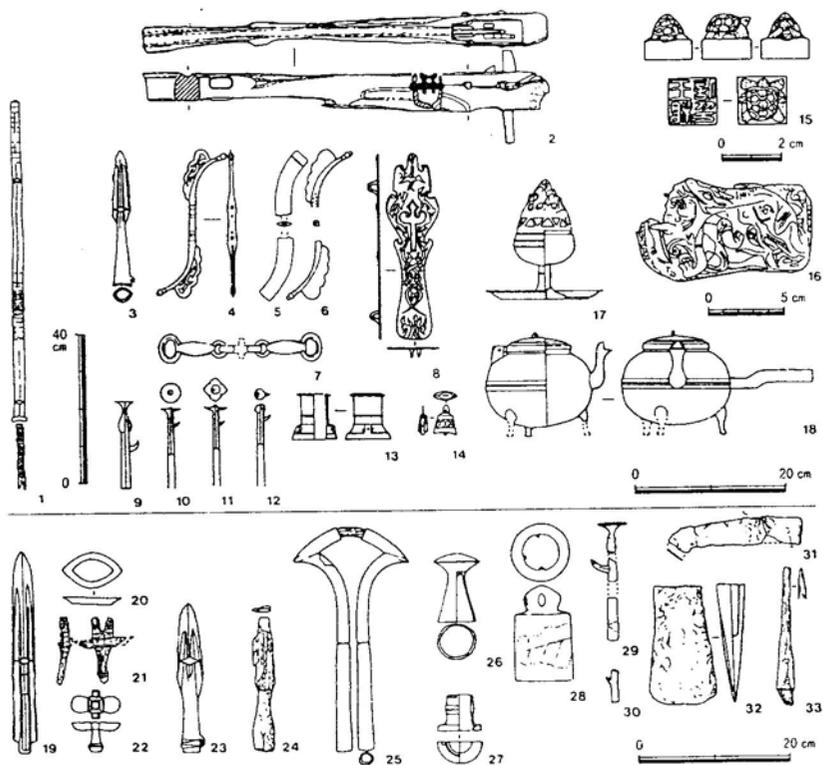


圖 1. 石巖里 219號墳·台城里 10號墳 出土 副葬品  
(上: 石巖里 219號墳, 下: 台城里 10號墳)

- 1: 鐵製長劍, 2: 笄棧, 3·23: 銅矛, 4~7: 戟, 8: 馬面, 9~12·29·30: 蓋, 13·27: 車軸頭, 14: 馬鈴, 15: 「王根信誦馬龜鈕銀印, 16: 金玉裝銀製鉞, 17: 青銅山爐, 18: 青銅盃, 19: 韓國式銅劍, 20~22: 銅劍附屬具, 24: 鐵矛, 25: 乙字形銅器, 26: 笠頭나팔形銅器, 28: 圓筒形銅器, 31: 鐵簾, 32: 鐵斧, 33: 鐵槩

이러한 非漢式 遺物은 樂浪初期, 즉 紀元前 1世紀代의 墳墓에 많이 副葬되어 있지만, 그 이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이에 반해서 漢式 遺物은 樂浪初期의 墳墓에서부터 副葬되기 시작하여 紀元 1世紀代가 되면 墳墓의 副葬品은 거의 漢式 遺物로 채워진다는 상황으로 보아, 非漢式 遺物과 漢式 遺物은 일단 시간상 先後관계로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양자가 並存하는 시기에는 墳墓에 따라 非漢式 遺物과 漢式 遺物의 數量 比率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紀元前 1世紀 後半에 축조된 木槨墓인 平壤市 貞柏洞 2號墳(高常

賢墓)<sup>11)</sup>, 石巖里 219號墳(王根墓)<sup>12)</sup>, 貞柏洞 1號墳(夫租歲君墓)<sup>13)</sup>, 南浦市 台城里 10號墳<sup>14)</sup>의 경우, 貞柏洞 2號墳과 石巖里 219號墳에서는 漢式 遺物이 많고 非漢式 遺物이 적는데 비해, 貞柏洞 1號墳과 台城里 10號墳의 경우는 非漢式 遺物이 대부분이고 漢式 遺物은 극히 적다(圖 1 참조). 앞의 두 墳墓 중 貞柏洞 2號墳에서는 「夫租長印」 銅印과 「高常賢印」 銀印이 출토되어 그 被葬者가 嶺東 七縣의 하나인 夫租縣의 長인 高常賢이라는 人物임을 알 수 있다. 또 石巖里 219號墳에서도 「王根信印」 龜鈕銀印(圖 1-15)이 출토되어 貞柏洞 2號墳과 같이 樂浪郡의 高官의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뒤의 두 墳墓 중 貞柏洞 1號墳에서는 「夫租歲君」 駝鈕銀印이 출토되었지만, 이것은 夫租縣에 있었던 濊族의 有力者에 賜與된 私印이므로<sup>15)</sup>, 縣長의 官職에 있었던 高常賢과는 명확한 階層的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副葬品에 보이는 漢式·非漢式的 차이는 被葬者의 階層的인 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樂浪에서는 上位階層이 漢式 要素가 보다 강하며, 이에 반해서 下位階層에서는 漢式 要素는 약하고 오히려 非漢式 要素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漢 郡縣인 樂浪郡의 문화는 농후한 漢式 文化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郡縣 設置 以前부터 이 지역에서 발전되어 왔던 非漢式 文化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樂浪 文化의 二面性은 三韓과의 交涉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각이 된다.

### III. 樂浪郡과 三韓과의 交涉形態

전술한 바와 같이 樂浪文化는 漢式 要素와 非漢式 要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三韓과의 交涉에 있어서도 고고학적으로 漢式 文物을 통한 交涉과 非漢式 文物을 통한 交涉이 보임은 물론이다. 여기서는 이를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한다.

11)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3

12) 熊本柱人·中村春壽 1975

13) 리순진 1964·1974a

14)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9

15) 岡崎敏 1968

16) 高久健二 1992a

## (1) 漢式 遺物에서 보이는 交涉形態

表 1. 韓國 南部地域 出土의 漢式 遺物(1)

遺物名	漢式 遺物	遺構 種類	同伴 遺物	遺構 時期	參考文獻
大邱市 坪里洞	虬龍文鏡 1	不明	倣製鏡, 韓國式銅劍, 재갈, 馬面, 小銅鐸, 笠頭圓筒形銅器, 青銅容器	B. C. 1世紀 後半	尹容鎮1981
大邱市 池山洞	日光鏡 5 昭明鏡 1	不明	韓國式銅劍附屬具, 銅戈附屬具, 角形銅器	B. C. 1世紀 後半	國立慶州 博物館1987
大邱市 飛山洞	蓋弓帽 2	墳墓?	韓國式銅劍, 銅戈, 銅矛, 虎形帶鉤 牛角形銅器	B. C. 1~ A. D. 1世紀	金廷鶴1972
慶北 慶州市 九政洞	鐵製環頭刀 1 穿孔鐵斧 1	木棺墓?	韓國式銅劍片, 銅矛片, 銅戈, 鐵鏃 鍛造鐵斧, 板狀鐵斧, 銅製雙鈴, 小銅鐸, 磨製石斧, 유리구슬	B. C. 1世紀	金元龍1952
慶北 慶州市 朝陽洞38號墳	日光鏡 2 昭明鏡 1 家常貴富鏡 1	木棺墓	鐵劍, 鐵斧, 板狀鐵斧, 灰白色軟質土器	B. C. 1世紀 後半	崔鍾圭1983
慶北 慶州市 碣里	青銅재갈 1	不明	不明	不明	藤田亮策 외 1925
慶北 永川郡 琴 湖面 漁鰾洞	日光鏡 2 虬龍文鏡 1	墳墓?	倣製鏡, 青銅帶鉤, 青銅판저, 土器 青銅製飾金具	B. C. 1世紀 後半	藤田亮策 외 1925
慶北 慶山市 林堂洞E-58號墳	有銘青銅製品 1	木棺墓	鐵鏃, 土器類	B. C. 1~ A. D. 2世紀	경산임당유적 발굴조사단 1996
慶北 慶山市 林堂洞E-132號墳	五銖錢 1	木棺墓	鐵劍, 劍把頭飾, 土器類	B. C. 1~ A. D. 2世紀	경산임당유적 발굴조사단 1996
慶北 慶山市 林堂洞E-138號墳	有銘青銅製品 1	木棺墓	板狀鐵斧, 土器類	B. C. 1~ A. D. 2世紀	경산임당유적 발굴조사단 1996
傳 慶北 尙州郡 出土	「魏率善韓佰長」 獸鈕銅印 1	不明	不明	不明	李賢惠1984
慶北 迎日郡 新光面 馬助里	「晉率善韓佰長」 獸鈕銅印 1	墳墓?	유리구슬	不明	梅原末治1967
慶南 金海市 金海貝塚	貨泉 1	包含層			濱田耕作· 梅原末治1923
慶南 金海市 大成洞2號墳	漢鏡片 2	木槨墓	鐵鏃, 鐵槍, 甲冑, 재갈, 鐵挺, 筒形銅器, 巴形銅器, 碧玉製石鏃, 骨鏃, 土器類	A. D. 4世紀 末	李相憲1990 · 1994
慶南 金海市 大成洞14號墳	內行花文鏡 1	木槨墓	鐵鏃, 札甲片, 재갈, 방패, 화살통 鐵鏃, 鐵鏃, 鐵鏃, 鐵斧	A. D. 5世紀 前葉	申敬澈1991 李海蓮1991
慶南 金海市 大成洞23號墳	方格規矩鏡 1	木槨墓	鐵製短劍, 環頭大刀, 曲刀, 鐵槍, 鐵矛, 札甲, 刀子, 鐵挺, 羽鈔, 巴形銅器, 구슬, 骨角器, 土器類	A. D. 4世紀 後半	申敬澈1991 李海蓮1991 李相憲1994
慶南 金海市 酒村面 良洞里 (1969年 出土)	方格規矩鏡 1	墳墓 (木棺墓?)	鐵劍, 鐵矛, 青銅製劍把頭飾, 유리구슬, 灰白色軟質土器	A. D. 1世紀	朴敬源1970

表 2. 韓國 南部地域 出土의 漢式 遺物(2)

遺蹟名	漢式 遺物	遺構 種類	同伴 遺物	遺構 時期	參考文獻
慶南 金海市 酒村面 良洞里162號墳	內行花文鏡 1 四乳禽獸文鏡 1	木槨墓	倣製鏡, 鐵劍, 鐵矛, 鐵鏃, 재갈, 鐵鏡, 鐵斧, 鐵鏃, 板狀鐵斧, 방패 青銅紋具, 環形銅器, 유리구슬	A. D. 2世紀 後半	東義大學校 博物館1991 林孝澤1992
慶南 金海市 酒村面 良洞里322號墳	銅鼎 1	木槨墓	未發表	A. D. 3世紀	東義大學校 博物館1994
慶南 金海市 酒村面 良洞里 (1992年 表採)	內行花文鏡 1	不明	不明	不明	東義大學校 博物館1992
慶南 金海市 酒村面 良洞里 (1995年 表採)	漢鏡片 1	不明	不明	不明	東義大學校 博物館1995
傳 慶南 金海市 良洞里 出土	青銅재갈 1	不明	不明	不明	國立慶州 博物館1987
慶南 蔚山市 下堡23號墳	銅鼎 1	木槨墓	未發表	A. D. 3世紀	安在皓1992
慶南 昌原市 城山貝塚	五銖錢 1	包含層			崔夢龍1976
慶南 昌原市 茶戶里1號墳	雲雲文鏡 1 五銖錢 3 青銅帶鉤 1 馬鈴 1	木棺墓	韓國式銅劍, 銅矛, 鐵劍, 鐵矛, 鐵戈, 刀子, 鐵斧, 漆器, 유리구슬 土器類	B. C. 1世紀 後半	李健茂외1989
慶南 固城郡 東外洞貝塚	細線式獸帶鏡片1	包含層			金東錫1984
傳 慶尚道 出土	日光鏡 1	墳墓?	韓國式銅劍	B. C. 1世紀 後半	李康承1984
忠南 夫餘郡 夫餘郡 場岩面	後漢鏡 1	不明	不明	不明	金貞培1979
全北 益山郡 王宮面 平章里	蟠螭文鏡 1	木棺墓?	韓國式銅劍, 銅戈, 銅矛	B. C. 1世紀 後半	全榮來1987
全北 益山郡 三箕面 蓮洞里	盤龍鏡 1	不明	不明	不明	金貞培1979
全北 益山郡 金馬面	後漢鏡 1	不明	不明	不明	金貞培1979
全南 海南郡 郡谷里貝塚	貨泉 1	包含層			崔盛洛1987
全南 麗川郡 西島里 巨文島	五銖錢 980	不明	不明	A. D. 1~ 2世紀	池健吉1990
濟州道 濟州市 健入洞 山地港	漢鏡片 1 五銖錢 4 貨泉 11 貨布 1 大泉五十 2	不明	倣製鏡, 青銅製劍鐔金具	A. D. 1世紀	梅原末治・ 藤田亮策1947

지금까지 한국 남부지역에서 출토된 漢式 遺物에는 漢鏡, 五銖錢이나 貨泉 등의 貨幣, 재갈이나 蓋弓帽, 馬鈴 등의 車馬具, 青銅容器, 環頭刀, 穿孔鐵斧, 青銅帶鉤, 印章 등이 있는데, 表 1·2에서 보듯이, 특히 漢鏡의 出土數가 다른 漢式 遺物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鏡式을 보면, 前漢 前期의 蟠螭文鏡, 前漢 中期의 星雲文鏡, 新~後漢 前期의 方格規規鏡, 後漢 後期の 圓座內行花文鏡, 四乳禽獸文鏡 등 각 시기의 漢鏡이 출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昭明鏡, 日光鏡 등의 異體字銘帶鏡이나 虺龍文鏡 등 前漢 後期の 銅鏡이 많다<sup>17)</sup>. 이러한 前漢 後期の 銅鏡이 출토된 遺構의 年代도 同件 遺物로 추정해 보면, 紀元前 1世紀 後半代의 것이 주류를 이룬다. 또 全北 益山郡 平章里에서 출토된 蟠螭文鏡은 前漢 前期에 제작된 銅鏡이지만<sup>18)</sup>, 中細形銅矛가 同件 出土되고 있으므로 그 遺構 年代는 前漢 中期 以前으로 編年하기는 어렵고<sup>19)</sup>, 역시 前漢 後期鏡이 출토된 다른 遺構와 같이 紀元前 1世紀 後半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sup>20)</sup>. 紀元前 1世紀 後半代는 樂浪에 있어서 夫婦合葬 木槨墓가 출현하고 銅鏡 副葬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또 이 시기부터 漢式 遺物도 平壤地域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樂浪郡의 發展期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三韓 古墳에 있어서의 漢鏡 副葬은 樂浪의 發展期를 계기로 해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때 蟠螭文鏡과 같은 古式鏡도 前漢 後期鏡과 함께 三韓地域으로 傳播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三韓의 慶北 永川郡 漁隱洞 出土一括遺物<sup>22)</sup>, 大邱市 坪里洞 出土一括遺物<sup>23)</sup>, 慶北 慶州市 朝陽洞 38號墳<sup>24)</sup> 등에서는 倣製鏡을 포함해서 복수의 銅鏡이 副葬되고 있는데, 이는 被葬者 한 사람에게 銅鏡 1面이 기본인 樂浪의 墳墓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銅鏡의 複數 副葬은 倭와 같이 三韓에서도 紀元前 1世紀代에 있어서는 원래 銅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 變容되고 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銅鏡 다음으로 출토수가 많은 것은 貨幣이다. 三韓 出土 貨幣의 流入 時期도

17) 岡村秀典 1993·1995

18) 全榮來 1987

19) 沈奉謹 1990

20) 高倉洋彰 1989

21) 이것은 한국 남부지역에 있어서 前漢鏡 傳播의 第一波라고 생각되며 漢式 文物 傳播의 시작을 나타낸다 (高倉洋彰 1989).

22) 藤田亮策외 1925

23) 尹容鎮 1981

24) 崔鍾圭 1983

紀元前 1世紀~紀元後 1世紀代の 것이 많으며<sup>25)</sup>, 漢鏡과 같이 그 대부분이 樂浪郡의 發展期에서 最盛期에 걸쳐서 남부지역으로 傳播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銅鏡이나 貨幣와 약간 樣相이 다른 것으로서, 慶南 蔚山市 下岱 23號墳<sup>26)</sup>, 慶南 金海市 良洞里 322號墳 出土의 銅鼎이 있다<sup>27)</sup>. 이 두 墳墓는 모두 3世紀代에 축조된 것이므로 다른 漢式 遺物과 시기적인 차이가 있다. 樂浪의 경우, 銅鼎은 石巖里 9號墳<sup>28)</sup>, 貞梧洞 1號墳<sup>29)</sup> 등 紀元後 1世紀代까지의 副葬品이며, 2世紀以後의 墳墓에 副葬된 예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漢墓에 있어서도 湖北省 宜都 M11號墳과 같이 後漢 後期の 墳墓에 銅鼎이 副葬된 특이한 예는 있지만<sup>30)</sup>, 前漢~後漢 初期의 墳墓에 副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3世紀 築造인 下岱 23號墳이나 良洞里 322號墳에 銅鼎이 副葬되었다는 사실은 예외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 良洞里 322號墳 出土의 銅鼎의 「西? 宮鼎 容一斗 并重十七斤七兩七」이라는 銘文은<sup>31)</sup>, 이것이 漢 中央에서 宮廷用으로서 제작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sup>32)</sup>. 그리고 보면, 원래는 외부로 유출될 수 없는 宮廷用의 銅鼎이 三韓에 전해지기까지는 漢의 滅亡, 樂浪郡의 衰退 등 3世紀代 東아시아의 복잡한 政治 狀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三韓地域에서 출토된 漢式 遺物을 보면, 墳墓의 경우, 昌原市 茶戶里 1號墳이나<sup>33)</sup> 良洞里 162號墳<sup>34)</sup>과 같이, 기타 副葬品도 풍부한 上位階層에 속하는 墳墓에 副葬된 예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이, 樂浪 墳墓는 上位階層으로 올라갈수록 漢式 要素가 강하고, 下位階層으로 내려갈수록 漢式 要素가 약하기 때문에, 樂浪郡과 三韓과의 交涉 중 漢式 文物을 통한 交涉은 樂浪 上位階層과 三韓 上位階層과의 交涉,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朝貢 交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sup>35)</sup>.

25) 池健吉 1990

26) 安在皓 1992

27)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4

28) 湯野貞 외 1927

29)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3

30) 宜昌地圖博物館·宜都縣文化館 1988

31) 林奎澤 1995

32) 谷豐信 1995

33) 李健茂 외 1989

34)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1, 林奎澤 1992

35) 이 점과 관련하여, 高久健二 1995에 대한 李在賢의 비판은 필자의 지금까지의 연구에 대한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여기서 다시 밝히 두고자 한다. 李在賢 1995는 高久健二 1995가 三韓地域에서의 漢式 鐵製長劍의 缺落을 근거로 樂浪 下位階層에서 三韓으로의 非 漢式 文化 傳播만을 強調하며 三韓의 主體性을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다. 그리

시기는 약간 내려 가지만, 慶北 尙州郡 出土 「魏率善韓伯長」 獸鈕銅印도 이러한 朝貢 交涉을 나타내는 遺物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朝貢은 사람의 大量 移動이나 貿易과는 달리, 遣使나 下賜를 통해서 文物이 이동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전해진 文物들은 文物 상호간의 體系의인 連結性이 없으며, 따라서 個別的으로 傳播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文物이 個別的으로 전해진 경우, 원래 遺物이 가지고 있던 의미도 變容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三韓地域에서 출토된 漢鏡의 경우, 銅鏡 容器인 鏡奩이 同伴되지 않고, 茶戶里 1號墳과 같이 武器類와 함께 副葬되고 있는 점이나, 飛山洞 出土의 蓋(卍<sup>37)</sup>)와 茶戶里 1號墳 出土의 馬鈴의 경우와 같이 기타의 車馬具가 缺落되고 있다는 점, 三韓 出土의 銅鼎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 뚜껑이 없다는 점, 漢代貨幣도 三韓에서는 貨幣로서 流通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점<sup>38)</sup> 등에서 뒷받침된다<sup>39)</sup>.

또 三韓으로 전해진 漢式 遺物은 다음 三國時代 文化로 계승·발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銅鏡의 副葬 風習은 4~6世紀의 古墳에 있어서 보편화되지 않았고, 또 漢式 車馬具도 三國時代의 馬具로 계승되지 않았다. 그리고 慶州市 九政洞에서 출토된 漢式 鐵製環頭刀<sup>40)</sup>와 三國時代에 盛行되는 環頭大刀도 직접적인 계승관계는 없으므로 양자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기적인 단절이 있었음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sup>41)</sup>. 靑銅鼎에 대해서도 良洞里 322號墳이나 下

나 이미 高久健 : 1992b·1995에 있어서 樂浪 上位階層에서 三韓으로의 漢式 遺物 傳播(A route)도想定하고 있으며(高久健 : 1992b, p.141~142·1995, p.265~267), 漢式 遺物인 鐵製長劍이 三韓地域에서 몇 개 출토되었다 하더라도, 이 A route를 통해서 傳播되었다고 본다면, 筆者의 견해에는 논리적인 모순은 없다. 즉 鐵製長劍을 비롯한 漢式 遺物이 三韓으로 傳播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漢式 遺物을 威信物으로서 적극적으로 도입한 三韓 쪽에 의해 그 意味가 變容되었다는 것이다(高久健 : 1995, p.270, 註75. 李崙周 1993도 같은 지적을 하였다). 필자는 이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 漢 文化와 다른 三韓 固有의 文化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결코 三韓의 主體性을 무시 내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36) 李賢惠 1984

37) 金廷鶴 1972

38) 岡崎敬 1982

39) 日本 福岡縣 三雲 1 號甕棺墓 出土의 四葉庫金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意味의 變容이 있었던 것이 지적되고 있다(町田亨 1988).

40) 金元龍 1952

41) 環頭大刀와 같이 漢 文化에 起源을 가진 遺物이 한국 남부지역에서 시기적으로 늦게 受容·變形되어 가는 현상은 鐵刀에 있어서도 볼 수 있다(高久健 : 1992b). 이러한 현상을 李崙周 1993은 樂浪과 남부지역에서 社會形成過程의 格差에 기인한 技術革新의 遲滯現象으로 파악하고 있다.

塚 23號墳에서 출토된 鼎과 皇南大塚이나 天馬塚 등 三國時代 新羅의 積石木槨墳에서 출토된 鼎은 系統的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sup>42)</sup>.

이렇게 보면, 漢式 文物은 個別的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體系的인 文化로서 受容되지 않았고<sup>43)</sup> 文物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의 變容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三韓의 漢式 遺物이 三國時代 文化로 계승·발전되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논하는 非漢式 文物을 통한 交涉과는 對照的인 현상이다.

## (2) 非漢式 遺物에서 보이는 交涉形態

非漢式 遺物로 들 수 있는 韓國式 銅劍(圖 2-17~19), 銅矛(圖 2-20), 鐵製短劍(圖 2-22~24), 鐵矛(圖 2-25~27) 등은 三韓의 墳墓에 흔히 볼 수 있는 副葬品이며, 특히 그 중에서도 鐵製武器類는 樂浪郡 設置 以後, 즉 紀元前 1世紀 後半 以後 副葬品의 主流가 된다. 이 시기의 墳墓로서 지금까지 조사된 茶戶甲墳墓群<sup>44)</sup>, 良洞里墳墓群<sup>45)</sup>, 朝陽洞墳墓群<sup>46)</sup>의 어느 墳墓群에서도 鐵製短劍과 鐵矛가 set로 副葬된 墳墓가 보인다. 또 이 모두가 身部 斷面形이 얇은 렌즈형, 혹은 菱形을 이루고 있다는 形態的인 類似點이 있으므로, 같은 鐵製武器 文化로서 樂

42) 鄭仁盛은 韓半島 出土의 青銅鼎을 輸入 青銅鼎과 韓國式 青銅鼎이라는 두가지 系統으로 分類하고 있다. 전자는 樂浪地域이나 良洞里 322號墳 出土品과 같이 中國 青銅鼎과 그 형태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고, 후자는 輯安 高句麗古墳이나 慶州 積石木槨墳 出土品과 같이 中國 青銅鼎과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후자는 漢代의 鼎에서 motif를 받아 高句麗에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鄭仁盛 1996). 이와 같이 漢式 遺物이 高句麗로 들어가 거기서 變容되면서 시기적으로 늦은 三國時代가 되어 한국 남부지역으로 傳播했다는 것은 鑿部에 扶入部를 가진 漢式 鐵矛(B類)에서도 볼 수 있다(高久健 : 1992b). 이러한 青銅鼎이나 鐵矛의 경우, 樂浪에서 傳播된 漢式 遺物은 三韓에 定着하지 않고, 오히려 中國에서 高句麗를 經由해서 流入된 變形 漢式(韓國式)遺物이 한국 남부지역에서 定着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遺物이라고 할 수 있다.

4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三韓에 있어서의 文字 使用의 問題이다. 그 당시의 文字 使用은 漢 文化의 波及을 의미하는데, 樂浪과 三韓과의 밀접한 교역을 고려하면, 당연히 三韓에 있어서도 漢字를 이해하여 外交文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高倉洋彰 1995). 茶戶里1號墳에서 출토된 붓도 三韓의 文字 使用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李健茂 1992). 그러나 李健茂도 지적하고 있듯이, 당시의 文字 使用은 上層階級의 일부분에 극히 한정되고 있었으며, 三韓文化에 文字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고는 생각하기가 어렵다. 역시 漢字가 보편화되는 시기는 銘文資料가 급격히 증가하는 三國時代부터이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44) 李健茂 외 1989·1991·1993

45) 朴敬原 1970, 韓永熙 외 1989, 林孝澤 1992·1993,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1·1992·1994·1995

46) 崔鍾圭 1983·1995, 韓炳三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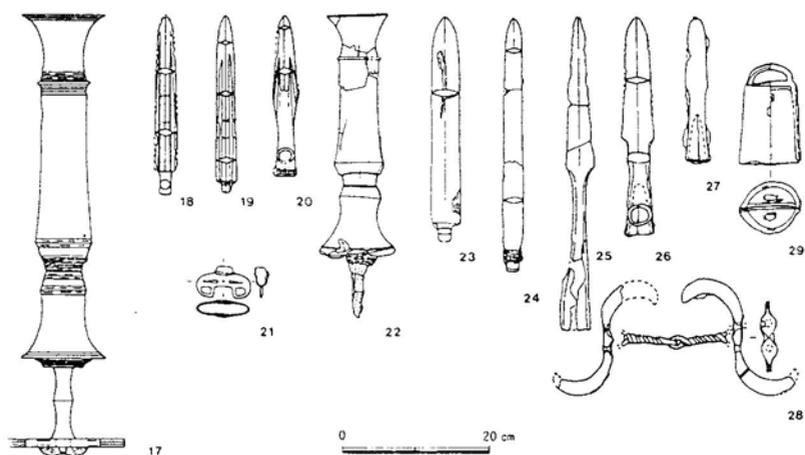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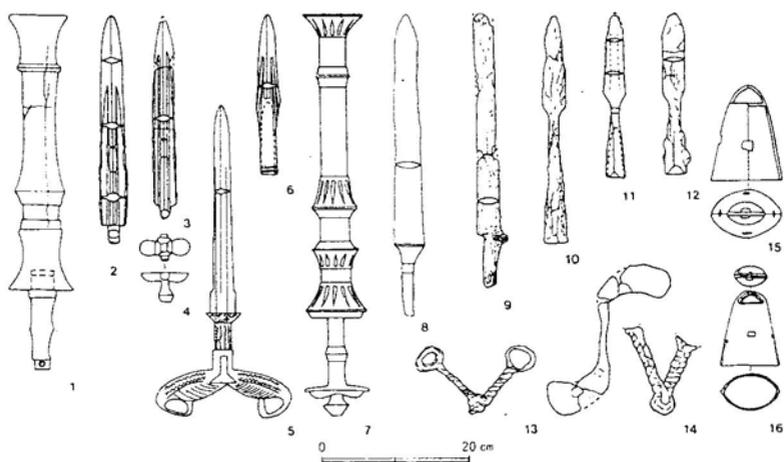


圖 2. 樂浪·三韓 出土 非漢式 遺物(上:樂浪,下:三韓)

- 1: 平壤市 龍欣洞木槨墓 2·11·14·16: 平壤市 上里木槨墓 3·4: 黃海 殷栗郡 雲城里 9 號墳  
 5: 平壤市 上城洞 486 號墳 6·8·13·15: 平壤市 貞栢洞 1 號墳 7: 平壤市 石巖里 219 號墳  
 9: 南浦市 台城里 15 號墳 10: 南浦市 台城里 6 號墳 12: 南浦市 台城里 8 號墳  
 17·22·25: 昌原市 茶戶里 1 號墳 18·20: 三千浦市 馬島洞出土 括遺物  
 19·28·29: 大邱市 坪里洞出土 括遺物 21: 大邱市 池田洞出土 括遺物  
 23·26: 金海市 良洞里出土 括遺物 24: 昌原市 茶戶里 20 號墳 27: 昌原市 茶戶里 36 號墳  
 1: 木製短劍 2~4·17~19: 韓國式劍劍 5·21: 觸角式把頭劍劍 6·20: 銅矛  
 7~9·22~24: 鐵製短劍 10~12·25~27: 鐵矛 13·14·28: 雜社 15·16·29: 小銅鐸

浪에서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三韓의 鐵製短劍과 鐵矛의 출현시기가 모두 紀元前1世紀後半頃이라는 사실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坪里洞, 茶戶里, 下堡, 良洞里, 朝陽洞 등에서 출토된 鐵棒을 꼬아서 만든 재갈쇠에 S자형의 재갈머치가 붙어 있는 재갈(圖 2-28)도 樂浪에서 傳播된 非漢式 遺物이라고 생각되며, 이 출현시기도 坪里洞의 年代에서 紀元前1世紀後半이라고 추정된다. 즉 漢式 文物의 경우와 같이 樂浪郡의 發展期에 이 非漢式 遺物들을 통한 交渉도 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樂浪 墳墓에서는 上位階層보다 下位階層의 墳墓에서 非漢式 要素가 濃厚하다. 물론 韓國式銅劍이나 鐵製短劍 등의 非漢式 遺物은 貞梧洞 2號墳이나 石巖里 219號墳 등 上位階層의 墳墓에서도 보이지만, 그 경우 鐵製長劍 등의 漢式 遺物도 같이 副葬되어 있다. 따라서 漢式 武器를 포함하지 않고 非漢式 文物을 통해서 三韓과 交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樂浪의 下位階層이었다고 想定할 수 있다. 이러한 下位階層의 사람들의 移動이나 貿易 등이 非漢式 文物의 傳播 要因으로 想定되는데, 이렇게 전해진 文物은 서로 關聯性을 가진 體系의인 文化로서 受容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非漢式 文物이 三韓에서 體系의인 文化로서 수용되었다는 것은 鐵製短劍과 鐵矛가 同 · 鐵製武器 文化로서 傳播되어 실제로 三韓에서 武器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 非漢式的 鐵製재갈도 三韓에서 馬具로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뒷받침된다.

또 樂浪에서 三韓으로 전해진 非漢式 文物은 다음 三國時代 文化로 계승·발전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鐵製短劍은 莖部와 身部가 길게 발달되어 陝川郡 苧浦里A地區 42號墳<sup>47)</sup>이나 陝川郡 鳳溪里 20號墳<sup>48)</sup> 등 4~5世紀代의 鐵劍으로 변한다. 鐵矛의 경우, 3世紀 後半에 莖部 下端에 挾入部를 가진 高句麗系 鐵矛가 流入된 뒤에도 身部 形態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樂浪系 鐵矛를 계승하고 있다. 또 鐵製재갈도 引手が 있는 高句麗系 재갈이 출현한 뒤에도 鐵棒을 꼬아서 재갈쇠 부분을 만드는 樂浪系 재갈의 要素가 남아 있다.

이상과 같이 樂浪郡의 各 階層間에는 漢式·非漢式 要素의 樣相이 다르고, 그 各階層과 三韓과의 交渉 形態에도 각각 차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樂浪에서 三韓地域으로 전해진 文物 중, 三韓文化에서 體系의인 文化로서 受容되고 다음 三國時代로 계승된 것은 樂浪의 非漢式 文物이었다고 할 수 있다.

47) 鄭永和 외 1987

48) 沈泰謙 1985

그러나 漢式 要素와 관련된 것 중에서 樂浪에서 三韓으로 수용되고, 다음 三國時代로 계승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還元燒成된 灰色土器와 木槨墓가 그것이다.

三韓의 灰色土器와 樂浪土器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이미 지적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樂浪土器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樂浪의 灰色土器는 漢의 製陶技術에 의해 製作된 것이며, 특히 河北地域의 漢式土器와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가 있다<sup>49)</sup>. 그러나 樂浪에는 花盆形土器와 같은 土着의 土器도 있으며, 樂浪郡 設置에 의해 土器構成이 漢式土器로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니다. 또 灰色土器에 대해서도 樂浪郡 設置 以前부터 한반도 서북지역에는 이미 戰國系의 製陶技術에 의해 제작된 打捺文土器가 있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어<sup>50)</sup>, 樂浪의 灰色土器는 郡 設置以前의 戰國系 製陶技術에 郡 設置 以後에 들어온 漢의 製陶技術이 導入되어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非漢式 要素를 基盤으로 하면서 漢式 技術을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三韓의 灰色土器는 漢의 技術도 보이지만, 非漢式 遺物의 傳播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三韓의 木槨墓의 경우, 현시점에서는 良洞里 7號墳과<sup>51)</sup> 같이 2世紀 前半代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2世紀 後半代가 되면 良洞里 162號墳과 같이 大型化되는 것으로 보인다<sup>52)</sup>. 그런데 三韓의 初期 木槨墓에 대해서 이미 樂浪 木槨墓와의 관련성이 지적되어 있다<sup>53)</sup>. 한편 樂浪 木槨墓는 樂浪 上位階層이 濃厚한 漢式 要素를 가진 墓制를 意圖적으로 漢에서 導入한 것이며, 郡 設置 當初부터 上位階層의 象徴적인 墓制로서 採用되고 있다<sup>54)</sup>. 樂浪에서는 이러한 木槨墓가 가지고 있는 象徴성이 특히 강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가 變容되면서 3世紀代까지 厚葬의 木槨墓가 上位階層의 埋葬主體部로서 존속된다. 三韓의 木槨墓는 이러한 樂浪에서 變容된 木槨墓가 傳播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三韓의 初期 木槨墓는 前時期의 木槨墓를 계승하는 부분도 많으므로 이것은 樂浪으로부터의 사람의 移動에 의해 傳播된 것이 아니라<sup>55)</sup>, 三韓 上位階層이 從來의 墓制에 樂浪 木槨墓의 要素를 적극적으로 導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게다가 당시 漢에서는 이미 木

49) 高久健二 1993

50) 崔秉鉉 1992

51) 韓永熙 외 1989

52) 林峯澤 1993

53) 崔秉鉉 1992

54) 高久健二 1994

55) 李在賢 1995

木槨 대신에 塋室墓가 主流를 이루고 있었던 것을 볼 때, 三韓 上位階層은 木槨墓를 漢文化로서 受容하였다든 것보다 오히려 木槨墓가 樂浪의 象徴的인 墓制였기에 그것을 威信物으로서 導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국 남부 지역에 있어서는 이러한 木槨墓의 象徴性이 특히 강하였기 때문에, 그 후 5世紀代까지 木槨墓는 다양하게 變容되면서 上位階層의 墓制로서 採用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三韓의 木槨墓는 樂浪에서 變容된 것이 意圖的으로 導入된 것이므로 紀元前後에 傳播된 漢式 遺物과는 구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sup>56)</sup>

#### IV. 맺음말

本稿에서는 樂浪郡의 階層의 特質과 漢式·非漢式 遺物의 樣相 그리고 이러한 樣相에 기인한 傳播過程의 차이에 주목하여, 三韓이 樂浪郡과 밀접한 交涉를 가지면서도 漢式化의 정도가 약하고 오히려 非漢式 要素가 강한 이유를 고고학적으로 설명해 보았다. 현재 한국 남부지역 출토의 漢式 遺物이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調査進展 여하에 따라, 그 수적 증가의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三韓에 漢式 遺物이 왜 적은가의 문제라기 보다, 漢式 遺物이 傳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 있는 漢文化가 충분히 전해지지 않았던 것은 왜인가의 문제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樂浪의 漢式文化 중에 禁輸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sup>57)</sup> 역시 本稿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漢式 遺物의 傳播過程과 그 意味의 變容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從來 樂浪文化에 대해서는 樂浪郡이 漢郡縣이었다고 하여, 漢式文化의 화려함만이 強調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漢文化는 樂浪을 象徴하는 文化이며, 樂浪文化는 항상 漢文化의 영향을 받아 변화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基礎가 되는 부분에서는 樂浪郡 設置 以前부터 이 지역에 존재해 온 土着文化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즉 樂浪文化는 漢文化和 土着文化라는

56) 高久健二, 1992b에서 상정했던 木槨墓 傳播過程에 있어서의 樂浪 下位階層으로부터의 傳播는 本稿의 三韓 上位階層의 主體性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限定할 필요는 없게 된다. 여기서 前稿의 잘못을 訂正하고자 한다.

57) 「胡市, 吏民不得持兵器及鐵出關」(漢書: 卷五十一「汲黯傳」應劭注)이라는 漢律의 存在를 보아, 始元五年(紀元前 82年)에 馬弩關이 廢止된 이후에도 漢式 鐵製武器의 輸出은 禁止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紙屋正和 1978). 그러나 이 法의 存在를 들어 弩機 등의 漢式武器가 三韓으로 전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傳播되었는데도 불구하고 三韓文化에 受用되지 않았던 漢式文物의 存在는 설명할 수 없다.

二面性을 가진 문화였다라는 점을 強調하고 싶다. 따라서 樂浪文化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漢式 遺物도 漢文化 그대로가 아니라, 漢文化와 土着文化가 融合하면서 어느 정도 그 의미가 變容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樂浪과 三韓과의 交涉을 생각할 때, 樂浪에서 漢式 文物을 導入한 三韓 上位階層의 主體性을 무시할 수는 없다. 三韓의 漢式 遺物이 上位階層의 墳墓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上位階層의 사람들이 자기의 階層的 位置, 혹은 支配의 正當性을 유지하기 위해서 漢式 遺物을 威信物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58)</sup>. 이와 같이 樂浪에서 變容된 漢式 遺物이 三韓에 受容되어 이용되는 과정에서도 그 의미가 여러가지로 변용되었을 것이다. 결국 樂浪과 三韓과의 交涉에는 이러한 三韓 上位階層의 意圖와 樂浪文化의 特質, 그리고 樂浪 上位階層에서 三韓으로의 傳播過程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漢式 遺物은 원래의 의미가 變容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要因이 되어 漢文化와는 다른 독자적인 三韓·三國文化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附記

本稿는 「樂浪郡と三韓·三國文化」(『考古學ジャーナル』 392, 1995年 9月)에서 지면 관계상 언급 못했던 부분과 인용 못했던 문헌을 이번 기회에 보완하는 한편, 새로 나온 자료나 연구성과를 포함하여 이를 수정·가필한 것이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또 本稿에서는 경칭을 생략하였다. 이 점 양해 바란다. 그리고 필자가 한국 유학 중,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모로 지도해 주신 沈泰謹 教授님께서 이번 『文物研究』 創刊號에 拙文의 게재를 추천해 주셨고, 埼玉大學 教養學部 同僚인 權純哲 教授님께서 本稿의 한국어 교정을 보아 주셨다. 또 본고를 작성함에 西谷正, 高倉洋彰, 山中良之, 溝口孝司, 金宰賢, 郭東哲, 板山明, 早乙女雅博, 大貫靜夫, 谷豊信, 川上洋一, 澁谷格, 重藤輝行 등 여러 선생님께서 지도·협력해 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한다.

58) 李盛周 1993은 樂浪으로부터 下賜된 遺物이 三韓社會에서는 階級分化和 支配權力을 合法化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 引用・參考文獻

- 岡崎敬 1968 「夫租蒨君」銀印をめぐる諸問題」『朝鮮學報』46
- 岡崎敬 1982 「日本および韓國における貨泉・貨布および五銖錢について」『森貞次郎博士古稀記念 古文化論集 上巻』森貞次郎博士古稀記念論文集刊行會
- 岡内三眞 1979 「朝鮮古代の馬車」『震壇學報』46・47
- 岡村秀典 1993 「樂浪漢墓出土の鏡」『彌生人の見た樂浪文化』大阪府彌生文化博物館圖録7
- 岡村秀典 1995 「樂浪出土鏡の諸問題」『考古學ジャーナル』392 ニューサイエンス社
- 경산임당유적발굴조사단 1996 『경산임당유적현장설명회자료』한국문화재보호재단 매장문화재발굴조사실
- 高久健二 1992a 「樂浪墳墓の階層性について」『韓國上古史學報』10
- 高久健二 1992b 「韓國出土 鐵矛의 傳播過程에 대한 研究 - 樂浪地域에서 南部地域으로 - 」『考古歷史學志』8 東亞大學校 博物館
- 高久健二 1993 「樂浪墳墓の編年」『考古學雜誌』78-4
- 高久健二 1994 「樂浪墳墓 埋葬主體部에 대한 研究 - 樂浪 社會構造의 解明 - 」『考古歷史學志』10 東亞大學校 博物館
- 高久健二 1995 『樂浪古墳文化 研究』學研文化社
- 高倉洋彰 1989 「韓國原三國時代の銅鏡」『九州歷史資料館研究論集』14
- 高倉洋彰 1995 『金印國家群の時代 - 東アジア世界と彌生社會 - 』青木書店
- 谷豊信 1995 「林孝澤・安在皓氏の發表に對するコメント」『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Archaeology Seminar 1994』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 연구소 1959 『태성리 고분군 발굴 보고』유적 발굴 보고 제5집 과학원 출판사
- 關野貞 외 1927 『樂浪郡時代の遺蹟』古蹟調査特別報告 第四冊
- 國立慶州博物館 1987 『菊隱 李養濬 蒐集文化財』
- 金東鎬 1984 「固城 東外洞貝塚 發掘調査報告」『上老大島』東亞大學校 博物館古蹟調査報告 第8冊
- 金元龍 1952 「慶州 九政里 出土 金石併用期遺物에 對하여」『歷史學報』1
-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第三版 一志社

- 金貞培 1979 「三韓社會의 “國”의 解釋問題」 『韓國史研究』 26
- 金廷鶴 1972 『韓國の考古學』 河出書房
-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1 『金海 良洞里 第162號 土壙木槨墓 發掘調査 概要』 指導委員會資料
-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2 『金海 良洞里 古墳群 第2次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資料
-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4 『金海 良洞里 古墳群 發掘調査』 指導委員會資料
- 東義大學校 博物館 1995 『金海 良洞里 古墳群 發掘調査 - 金海 良洞里 山 6-2 番地와 山 4番地の 境界地點에 대한 緊急調査』 指導委員會資料
- 藤田亮策 외 1925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 第二冊
- 리기린 1967 「룡추동 움무덤」 『고고민속』 4
- 리순진 1964 「<부조예군> 무덤에 대하여」 『고고민속』 4
- 리순진 1974a 「부조예군무덤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 리순진 1974b 「운성리유적 발굴보고」 『고고학자료집』 4
- 梅原末治 1967 「普率善穢伯長 銅印」 『考古美術』 8-1
- 梅原末治·藤田亮策 1947 「濟州道山地港出上の一括遺物」 『朝鮮古文化綜覽』 1 養徳社
- 朴敬源 1970 「金海地方出土 靑銅遺物」 『考古美術』 106·107
- Pai Hyung Il(裴炯逸)1989 「Lelang and the 'Interaction Sphere': an Alternative Approach to Korean State Formation」 『Archaeological Review from Cambridge』 8-1
- 榎本杜人·中村春壽 1975 『樂浪漢墓 第二冊 石巖里二一九號墓發掘調査報告』 樂浪漢墓刊行會
- 濱田耕作·梅原末治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83 『고고학자료집』 6
- 三上次男 1966 「朝鮮の古代文化と外來文明-とくに中國文明・內陸アジア文明との關係について-」 『古代東北アジア史研究』 吉川弘文館
- 西谷正 1966 「朝鮮におけるいわゆる土壙墓と初期金屬器について」 『考古學研究』 13-2
- 小田富士雄·韓炳三 1991 『日韓交渉の考古學 弥生時代篇』 六興出版
- 申敬澈 1991 「金海大成洞古墳群 第二次發掘調査の概要と成果」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8 大和書房
- 沈奉謹 1986 『陝川鳳溪里古墳群』 東亞大學校 博物館 古蹟調査報告書 第13冊

- 沈奉謹 1990 「三韓·原三國時代の 銅鏡」 『石堂論叢』 16 東亞大學校 石堂傳統文化研究院
- 沈奉謹·鄭聖喜 1982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 青銅遺物新例」 『古文化』 20
- 沈奉謹·朴恩貞 1992 「韓國 青銅劍 系譜와 그 同伴遺物」 『韓國上古史學報』 10
- 安在皓 1992 「蔚山 下岱가 地區古墳의 性格」 『제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발표 및 토론요지』 영남고고학회
- 윤광수 1994 「토성동 486호나무곽무덤 발굴보고」 『조선고고연구』 4
- 尹龍九 1995 「三韓의 대외교역과 樂浪」 『三韓의 社會와 文化』 韓國古代史研究會 第8회 合同討論會
- 尹容鎮 1981 「韓國青銅器文化研究 -大邱坪里洞出土- 一括遺物檢計-」 『韓國考古學報』 10·11
- 宜昌地區博物館·宜都縣文化館 1988 「湖北宜都發掘三座漢墓」 『考古』 8
- 李康承 1984 「漢鏡과 作出的 細形銅劍의 一例」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叢』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叢刊行委員會
- 李健茂 외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 『考古學誌』 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 외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 -第3·4次 發掘調查概報-」 『考古學誌』 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 외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III) -第5·6次 發掘調查概報-」 『考古學誌』 5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健茂 1992 「茶戶里遺蹟 출토 붓(筆)에 대하여」 『考古學誌』 4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李相憲 1990 「金海大成洞古墳群 第1次 發掘調查報告」 『第14회 韓國考古學全國大會 發表要旨』
- 李相憲 1994 「洛東江下流域의 加耶墓制에 관한 考察 - 土壙木棺墓·土壙木槨墓를 中心으로-」 東義人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 李盛周 1993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集』 5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李在賢 1995 「弁·辰韓 社會의 발전과정 -木槨墓의 출현배경과 관련하여-」 『嶺南考古學』 17
- 李鍾旭 1989 「韓國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 『韓國史研究』 67
- 李海進 1991 「金海大成洞古墳群 第2次 發掘調查報告」 『第34회 全國歷史學大會

發表要旨

-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李賢惠 1994 「1~3世紀 韓半島의 對外交易體系」 『古代東亞細亞의 再發見』 湖巖美術館 學術叢書
- 林孝澤 1992 「金海 良洞里 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제35회 전국역사학대회 논문 및 발표요지』 한국과학사학회
- 林孝澤 1993 「洛東江下流域 加耶의 土壙木棺墓 研究」 漢陽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林孝澤 1995 「後藤直・岡内三眞・谷豊信의 코멘트에 대한 答辯」 『The Second Pacific Bas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 : Archaeology Seminar 1994』 東北亞細亞考古學研究會
- 全榮來 1987 「錦江流域 青銅器文化圈 新資料」 『馬韓・百濟文化』 10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 鄭永和외 1987 『陝川芋浦古墳 A 發掘調査報告』 嶺南大學校 博物館 學術調査報告 第8冊
- 鄭仁盛 1996 「韓半島 出土(青銅)鼎에 대한 研究 -中國 資料와의 比較를 통하여-」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예연구원회 제2차 학술대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町田章 1988 「三雲遺跡의 金銅四葉座金具について」 『古文化談叢』 20上
- 池健吉 1990 「南海岸地方 漢代貨幣」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論叢 刊行委員會
- 紙屋正和 1978 「前漢時代の關と馬弩關」 『福岡大學人文論集』 10-2
- 志賀和子 1994 「漢代『北方系』帶金具考-金銀製打出鉸具について-」 『古代文化』 46-7・8
- 崔夢龍 1976 「西南區貝塚發掘調査報告」 『馬山外洞城山貝塚發掘調査報告』 文化財管理局
- 崔秉鉉 1992 『新羅古墳研究』 一志社
- 崔盛洛 1987 『南海郡谷里貝塚 I』 木浦大學校 博物館
- 崔鍾圭 1983 「慶州市朝陽洞遺跡發掘調査概要とその成果」 『古代文化』 35-8
-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書景文化社
- 韓炳三 1989 「原三國時代 -嶺南地方의 遺跡を中心として-」 『韓國의 考古學』 講談社
- 韓永熙 외 1989 『김해양동리고분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연구소